

美·科学分析機器展

50余社參加 盛況

美国科学分析機器展이 5월 25일 李正五 과기처장관,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, 李柱天 한국과학기술원장 등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하이아트호텔에서 개최됐다.

29일까지 5일간 열린 이 전시회에는 美国 암팩스社 등 50여 메이커들의 최신개발 과학기들이 출품됐는데 특히 화학약품의 성분을 가려내어 정보를 즉시 인쇄로 나타낼 수 있는 色層分析機를 비롯, 휴대용 적외선 계량기, 물과 공기의 온도 측정기 등이 눈길을 끌었다.

金賞 5個 획득

世界發明品大會서

5월 14일부터 17일까지 美国 뉴욕에서 열린 제 5회 「世界發明品展示會(EXPO81)」에서 우리나라는 金賞 5개, 銀賞 및 銅賞 각 1개씩을 차지해 韓國頭腦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했다.

우리나라는 이 전시회에 14점의 發明品을 출품, 이 중 7점이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전시회에는 美国, 멕시코, 이스라엘 등 16개국에서 1백78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.

수상작품 및 발명가는 다음과 같다.

▲金賞：吳亨克(熱対流性 실키브라인드)·徐建熙(나무결 무늬를 나타내는 形成體의 제조법)·朴一千(시계탑 시계의 회전장치)·蔡利順(연약한 지반의 처리를 위한 工法)·安炳烈(야외용 석유버너의 豫熱장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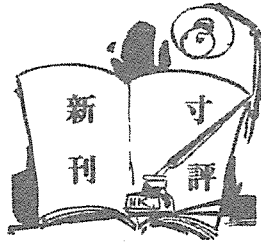
▲銀賞：俞炳彦(종이비누)

▲銅賞：朴鍾求(자동차 前照燈 자동차照光機)

COSMOS (코스모스)

Carl Sagan 著

徐光云 訳



생생한 원색 사진 등 실감나는 250여개의 도판을 곁들여 펼쳐지는 대우주의 身上明細書이기도한 이 책에는 과학과 문명, 그리고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오한 과학이 들어있다.

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생명체의 기원은 무엇이며, 어떻게 변화해 온 것인가, 칼·세이건은 1백50억년에 걸친 우주의 진화를 추적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예언한다.

멀지않아 인간의 知的能力은 4차원의 세계를 응용할 것이며, 태양의 쇠퇴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쯤이면 이미 지구를 벗어나 새로 찾아낸 별에서 <또하나의 낙원>을 건설할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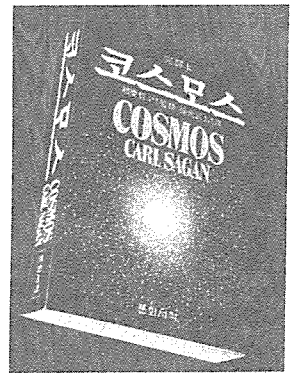
필자 칼·세이건은 물리천문학상을 받은 금세기 최고의 行星研究家로 코넬대학교 천문학 및 우주공간과학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.

또한 行星연구에 이바지하고있는 선구적인 천문지 이카루스(ICARUS)에서 12년동안 수석 편집장이기도 했던 그는 400여개에 달하는 쉬운 과학논문, 12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여 인류복지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업적으로 성 조셉상(Joseph Priestley Award)을 수상했다(1975년).

文化書籍刊：대형 크라운版

488면, 값 3,700원

(本誌編輯部)



★訂

正★

◆'81년 5월호：표2 하단 鄭英昊(서울대 농대교수)를 <서울대 自然科學大學교수>로 바로 잡습니다.

◆'81년 4월호：P13 우측 하단의 표4 <재미 한국과학기술자 현황>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.

	박사	석사	학사	대학원생	기타	계
이학	349	96	41	88	2	576
공학	398	259	114	95	16	882
의약학	56	3	6	4	1	70
농학	9	4	6	1		20
기타	5	14	9	12	1	41
계	817	376	176	200	20	1,589